

K-팔란티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본격화... 전략분야 선정계획 및 펀드 조성방안 등 논의

- 중기부,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538개사 1차 신안보 분야 기업Pool 구축 현황,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계획·혁신기업 평가기준, OTA형 R&D 지원방안 및 펀드 조성계획 등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28일(수) 서울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안보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업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 내외가 참석했으며, ①신안보 분야 기업 풀(Pool) 구축 결과 ②신안보 전략분야 선정계획 및 혁신기업 평가기준(안) 마련 ③OTA*형 기술개발(R&D) 지원 방안 ④신안보 분야 펀드 조성 등 투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 : 미국의 일부 연방기관이 기존 연방조달규정을 따르지 않고,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계약·실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계약 권한

① 신안보 분야 기업Pool 구축 결과 공유

중기부는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및 벤처기업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1차 신안보 분야 기업 풀(Pool)을 구축하였다.

< 분야별 신안보 기업Pool 현황 >

(단위 : 개사)

드론	로봇	AI	반도체	센서	(신)소재	우주항공	보안	양자	합계
68	58	145	40	46	30	115	65	18	538*

* 일부 분야 중복 47개사 제외

추천받은 기업은 관계부처의 소관 법령·사업에 따라 선정·지원받은 기업으로서, 신안보 분야의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다.

향후 기업 풀(Pool)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성 및 성장성, 안보 기여도, 보안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선정·육성할 계획이다.

②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 계획 및 혁신기업 평가기준 구체화

다음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한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 계획과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관계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안보 전략분야는 인공지능(AI),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반도체, 우주항공, 드론, 신소재, 센서, 양자 등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혁신기업의 신안보 분야 연구개발비 투자 수준, 지식재산 등을 보는 ‘기술혁신성’,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성 및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대한 효용성을 평가하는 ‘안보 기여도’, ▲매출성장과 투자유치 실적과 관련한 ‘성장잠재력 및 사업화’ 및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여부 등 보안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업계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전략분야 및 평가기준을 구체화한 후 신안보 혁신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③ 공공수요 기반 대규모 기술개발(R&D) 지원체계 구축

국가안보 분야의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의 고난도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OTA형 기술개발(R&D)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OTA형 기술개발(R&D)은 기술개발(R&D)부터 실증, 구매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최대 5년에 걸쳐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공 수요기관이 과제기획부터 기술개발·실증까지 직접 참여하고, 수요 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성과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국가안보 분야에 신속하게 도입하고, 기술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④ 펀드 조성 등 투자 지원 확대

신안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도 논의했다.

신안보 분야는 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반면, 국가안보와 미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에 관계부처는 대규모 펀드 조성 계획 등 신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 방안을 협의하였다.

중기부는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를 토대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안보 전략분야 선정과 혁신기업 발굴·평가체계를 구체화하고, 기술개발(R&D)·투자·실증·사업화 등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 수단을 논의·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첨단기술이 국방·안보 등 공공 분야에서 활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신안보 분야는 국가안보 역량 강화뿐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신안보 분야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발굴부터 연구개발과 투자·사업화까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 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TF	책임자	팀장	정연호 (044-204-7640)
		담당자	서기관	편장범 (044-204-7175)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장	조성우 (044-204-7520)
		담당자	사무관	강효민 (044-204-7712)
	기술개발과	책임자	과장	정세환 (044-204-7760)
		담당자	사무관	김종원 (044-204-7763)
담당 부서 < 협조 >	재정경제부 전략수출지원과	책임자	과장	김종현 (044-215-4970)
		담당자	사무관	김태순 (044-215-4971)
	국방부 국방인공지능정책과	책임자	과장	문윤태 (02-748-5940)
		담당자	중령	최홍식 (02-748-5941)
	기획예산처 방위력강화예산과	책임자	과장	김민석 (044-214-3170)
		담당자	사무관	박형민 (044-214-3173)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	책임자	과장	박진아 (02-2079-6410)
		담당자	중령	김민성 (02-2079-641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책임자	과장	박장한 (055-856-4330)
		담당자	사무관	이윤소 (055-856-4334)

